

# 남조선에서 북한문학 연구하기

## - 허물어진 경계 혹은 다시 경계 만들기 -

이에찬(성균관대학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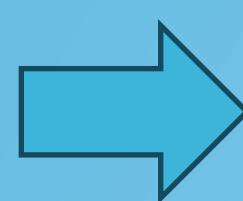
### 1. 남조선:북한문학≠대한민국:조선문학

#### 대한민국에서 북한문학을 읽는 것

- 왜? 무엇 때문에?
  - 취향의 문제
  - 무슨 사명이나 소명과는 무관
- 불온과 불법에 대한 인식
  - ‘북한문학’이라는 명칭이 던지는 이미지 : 내재된 ‘반공 심리’
  -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: 국가보안법과 현실의 괴리
- 호기심
  - 읽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‘주변의 시선’
  - 다시 “왜? 무엇 때문에?”라는 질문

#### 명칭과 호명의 문제

- ‘북한문학’과 ‘남조선’
  - 수용 가능한 것과 배제해야 하는 것
  - 울타리 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보이는 것
  - 어떻게 ‘남조선’ 역시 안전판 바깥으로 스스로를 몰아내는 것
- ‘대한민국’에서 ‘조선문학’
  - ‘조선’이라는 역사성을 일단 옆으로 미루어 두고
  - 수용 불가능한 것(배제해야 했던 것)에 대한 문제
  - ‘대한민국’이라는 안전판 위에서 울타리를 해제하는 작업
- ‘동질성’이나 ‘이질성’이나
  -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서 벗어날 것
  -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대한 접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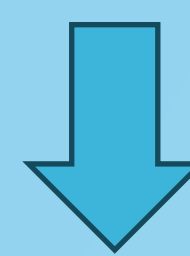
### 2. 허물어진 경계에서 북한문학

#### 북한문학이라는 발견

- ‘북한문학’이라는 실체
  - 수용과 이해의 맥락
  - 그야말로 베일에 쌓였던 존재
- 탈정치의 역사 쓰기
  - ‘동질성’그러나 ‘거울상’
  - ‘소문’과 ‘목격’ 사이에서 경험하는 충격의 순간
- ‘알 수 없음’이 아닌 ‘알지 못 함’
  - 알 수 없던 추상적 대상에서 알지 못 한 구체적 대상으로

#### 한국문학과 북한문학의 관계

- 해방과 분단이라는 변곡점
  - 1945년 이전의 문학이라는 하나의 ‘뿌리’
  - 1945-1953년 이후 갈라진 ‘줄기’
- 남북 문학의 동질성
  - 하나의 뿌리라는 환상
  - 갈라진 줄기에서 맺혀야 하는 같은 열매에 대한 환상
- 통일·통합·교류
  - 극복과 초월의 미래
  - 탈정치의 실패, 정치어로 구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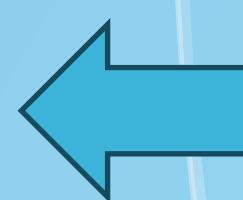
### 4. 조선문학으로 경계 세우기

#### 분단과 냉전이라는 시공간 문제

- 1945-1953년 이후 80여 년
  - 분단과 냉전의 시공간
  - 대결과 갈등, 교류와 협력의 끊임없는 반복
- 탈분단의 노력
  -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의 움직임
  - 정치·경제가 아닌 사회·문화의 역할
- 탈냉전이라는 시선
  - ‘지구적 냉전과 지역적 냉전’이라는 중첩된 냉전의 문제
  -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 / 미래에 대한 여전한 체념

####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

- 남북 문학예술의 ‘동질성’
  - 어쩌면 ‘언어’만 같은 것, 또는 그 언어조차 다른 것
  - 무엇이 같은가, 무엇을 공유하는가
  - 왜 같아야 하고, 왜 공유해야 하는가
- 남북 문학예술의 ‘이질성’
  - 어쩌면 당연히 다른 것, 또는 다른 것을 외면했던 과거
  - 대한민국만의 ‘문학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의 ‘문학’
  - 정말로 남북의 문학예술은 ‘하나’인가
- ‘있는 그대로’의 남북 문학예술
  -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와 결별해야 하는 순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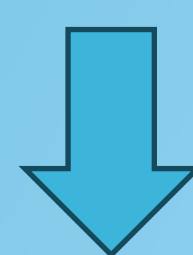
### 3. 다시 만들어진 경계와 북한문학

#### 북한문학에 대한 오해

- 북한문학=선진문학?
  - 사회주의 미학(당성·계급성·인민성)에 대한 부족한 이해
  - 사회주의 예술≠프로파간다
- 북한문학=수령형상문학?
  - 수령에 복무하는 문학이라는 인식
  - 총서 《불멸의 력사》, 《불멸의 향도》, 《불멸의 려정》
- 북한문학=항일혁명문학?
  -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대한 왜곡과 굴절
  - 총서 《충성의 한길에서》

#### 북한문학≠주체문학

-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예술이라는 ‘전통’
  - 카프(KAPF)와 소비에트(U.S.S.R.)의 영향
  - 해방 후 문학예술인들의 ‘평양’ 선택
- ‘주체문학’이라는 기준점
  - 정치적으로 1967년, 문학예술적으로 1973-1992년
  - 유일사상체제와 『영화예술론』 그리고 『주체문학론』
- 천편일률적인 문학이란 오해
  - 한국문학의 틀에 맞는 것만 북한문학으로 호명하던 것에 대한 성찰
  - 대등한 상대 혹은 일반적인 대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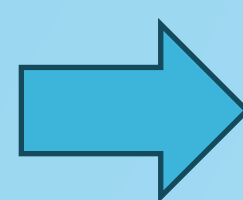
### 5. 조선문학으로 경계 허물기

#### 역사의 공유, 기억의 간극

- 동일한 역사의 이중적 의미
  - 1945년 이전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의 문제(정말로 공유하는가)
  - 서로에게 상실된 시간을 교차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
  - ‘강경애’처럼 남북 모두에서 기억되지만, 공유하는 작품이 다른 경우
- 역사와는 다른 ‘기억’의 간극
  - 남북 모두에서 지워진 존재들
  - 남북 각각에서 기억하는 존재들≠남북 각각이 지워야 했던 존재들
  - 남북 각각에서 지워진 존재들≠남북 각각이 기억하고 있는 존재들
-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닮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
  - 분단의 세월은 그만큼의 단절과 교류 없음의 시간이 축적된 상황

#### 외면과 은폐가 아닌, 직면과 공개

- 외면이 아닌 직면
  - 수용 가능한 것만 추리지 않을 것
  - 배제해야 할 것을 고민하지 말 것
  -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민
- 은폐가 아닌 공개
  - 숨겨야 하던 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
  - 내놓고 보여줘도 충분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
- 직면과 공개의 어려움과 외면과 은폐의 손쉬움 사이
  -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음에 대한 정치공학적 이유가 아닌
  - 더 이상 숨겨도 의미가 없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민



### 6. 북한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경계

#### 북한문학을 읽는 남조선 연구자 또는 조선문학을 읽는 서울 학자

- 서로가 서로를 ‘괴뢰’로 칭하는 시절의 끝
  - 배제와 수용의 의미를 초월한,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이자 명칭
  - 하지만 여전히 ‘북한’이라는 울타리가 존재
  - 북한문학을 읽는 것과 조선문학을 읽는 것의 차이는 있는가
  - 서울의 학자는 정말로 ‘조선문학’을 읽을 수 있는가
- 북한문학이 아닌 조선문학으로
  - 한국문학의 하위에 위치할 수 없는 조선문학에 대한 인정
  - (지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린) 교류에 대한 희망
  - 당장의 통합과 통일이 아닌, 점진적인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

#### 남조선문학을 읽는 북한연구자 또는 한국문학을 읽는 평양 학자

- ‘지금, 여기’에서는 상상기도 힘든 그 무엇
  - (지금, 그곳에서는 남조선도 지워지고 ‘괴뢰’만 남지 않았을까)
- 현재까지는 일방의 주장만이 엇갈린 것은 아닐까
  - (이제는 그 일방의 주장조차 서로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)